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1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4월 15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이 날아오르는 속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자주의 혁명로선, 자력갱생의 혁명방식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거창한 창조와 건설의 새시대를 수놓으시며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며 필승의 신심드높이 견인불발의 과감한 투쟁을 벌려 뜻깊은 태양절을 비상한 정치적열의와 자량찬 로력적성파로 맞이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중앙보고대회 개최가 선언되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보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는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경축광장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상징인 공화국기를 대형기폭으로 펼친 시위대렬이 들어섰다.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시위대렬이 들어서자 축포가 터져 오르고 수많은 풍선이 날아올랐으며 광장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시위군중들은 한평생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며 자주, 자립, 자위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창조와 변혁으로 총만된 조국번영의 일대 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만고불멸의 업적에 대한 열화의 칭송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에 담아 터쳐올리였다.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진함을 모르는 필승의 힘과 투쟁의지를 안겨주시고 신념의 역센 기둥을 세워주시는 혁명의 대성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심이 경축의 광장에 격류되어 굽이쳤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과 국가를 충성의 일원단심과 혁명적기개로 받들어가는 미더운 인민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격려해주시였다.

(2면으로 계속)

더불어 영원무궁할것이다》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1912년의 4월 15일이 있어 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고 인민이 누리는 존엄과 영광, 행복이 있다는 진리가 세대는 바뀌어도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더욱더 절절하게 새겨지고있고 하면서 한평생 인민과 운명을 같이 하시며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시고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만고의 업적을 자자손손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로 변함없이 즐기게 나아가갈 때 우리 국가가 그 어떤 고난과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이 인민의 리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천하제일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리라는 것이 김일성조선 110년의 빛나는 총화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하신 한생이 응축되어있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유산

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은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리상이 완벽하게 실현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진군해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중앙보고대회에 이어 《빛나는 조국》의 숭엄한 선율이 울리는 속에 평양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반만년민족사에 그 이름도 빛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사회주의 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탄생 11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세월이 흘러도 진함없고 더욱 절절한 그리움의 정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우리러 삼가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 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덕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 홀들을 찾으신 원수님께서서와 녀사께서는 이 땅우에 이민위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동서고금에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 기적의 력사를 창조하시어 후손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위한 억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영생 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태양의 위업을 만대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충성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헌신분투함으로써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단체 책임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당과 인민이 부여한 무거운 사명과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1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석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시위참가자들은 백두에서 창조된 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일심단결의 정치사상

강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진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불같은 열정속에 광장을 활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축광장에 또다시 러져오른 환호성은 백두의 위업을 받들어 우리 조국과 혁명을 필승의 한길로 향도하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따라 승리의 천만리, 영광

의 천만리를 여세게 걸어갈 공화국인민의 신년의 메아리로 4월의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갈 공화국인민의 혁명적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우리식 사회주의 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준공레프를 끊으시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의 역센 기상과 비상한 창조정신, 웅대한 목표실현에 용진하는 우리 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과시하며 수도 평양의 송신, 송화지구에 인민의 리상거리를 웅장하게 솟아올랐다.

수도 평양을 주체사상과 주체문화, 우리식 문명의 중심지로, 인민의 위대한 도시로 더욱 훌륭히 전면시키려는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민건설자들은 증첩되는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며 총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을 벌려 불과 1년사이에 80층초고층 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세대의 특색있는 대건축군을 일떠세우는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송화거리 준공식이 4월 11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영원불멸할 정치리념, 확고부동한 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며 인민의 웃음과 행복넘친 사회주의리상사회를 일떠세워가시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었다.

준공식장은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창조와 기적의 새시대로로 줄기차게 향도하는 당중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열화같은 흠모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준공사를 하였다.

그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대건설력사에 준공의 벅찬 사변들은 많고 많았지만 오늘의 이 시각은 참으로 잊을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되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간직하고있다고 하면서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불같은 신조로 줄기차게 솟아오른 위대한 사랑의 기념비가 송화지구의 선경이라고 강조하였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온 나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수도시민들이 오늘의 이 감격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함에 몸과 마음 다 바쳐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송화거리 준공레프를 끊으시었다.

순간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날아오르는 속에 전체 참가자들은 사랑의 위대한 힘으로 인민의 락원을 가꾸시며 하늘같은 은덕을 거둬

따뜻이 손져어주시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송화거리를 돌아보았다.

현대적인 80층초고층 살림집과 고가다리, 편의봉사시설 등을 보면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위민헌신의 려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색과 실천의 한초한초, 날과 날들이 그대로 조국번영의 디딤돌이 되고 인민의 행복이 넘쳐흐르는 로동당 새시대로 빛나고있음을 더욱더 절감하였다.

문명의 새 거리를 확보하는 북반은 주인공들은 우리 인민을 위해 가장 어려운 나날에 무거운 짐을 기꺼이 웃으며 걸머진 고마운 어머니당의 진정인 사무치게 마쳐와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세상이 제일이고 우리 정책이 제일이라고 한결같이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 바라는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간직한 그들은 우리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에서 창조와 혁신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될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부흥강국의 새세상, 새시대를 확신성있게 당겨오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의지에 받들려 솟아난 송화거리리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될 수도 평양의 래일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펼친 웅대한 국가부흥의 설계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있는 속에 수도의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특색있는 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섰다.

평양에 또 하나의 천지개벽을 펼치며 완공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최상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안겨주는것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우는 당중앙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발전전략이 응축된 새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이 4월 13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4월의 봄하늘을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숭고한 복무정신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우리 조국을 강대하고 문명한 인민의 제일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순간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준공식장에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이 꽃피는 보통강반의 상공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환호하는 군중속에 서있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리춘희, 최성원 책임방송원들과 로동신문사의 동태관 론설위원을 비롯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너무나 회한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리춘희방송원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그가 살게 될 경루동 7호동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령도자와 전사들간의 혈연의 정 넘치는 불멸의 화폭이 펼쳐지는 속에 끝없이 터져오르는 격정의 환호로 하여 보통강반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리춘희방송원의

집을 찾으시여 가족방을 비롯한 살림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가족들의 소감을 친어버이심정으로 정깊게 들어주시였으며 년로한 그가 집안의 총계를 오르내리면서 불편한 점이 없겠는가를 세심히 헤아려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모든 생활상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회한한 살림집이 꼭 호텔같다고, 당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온 가족이 감격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로방송원의 무량없는 이야기도 기쁨속에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꽃나이처녀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는 50여년간 당이 안겨준 혁명의 마이크와 함께 고결한 삶을 수놓아온 리춘희방송원과 같은 나라의 보배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는것이 우리 당의 진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0고

개를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청춘시절의 기백과 열정으로 우리 당의 목소리, 주체조선의 목소리를 만방에 울려가고있다고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우리 당이 자랑으로 내세우고있는 오랜 녀성방송원들은 당의 정책과 국책,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위상을 세상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불같은 정열로 방송사업에서 성과를 계속 거두는것과 함께 우리 방송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후비육성에서도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이 책임적인 일을 당부한다는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리춘희방송원이 로당직장하여 앞으로도 당중앙의 대변인답게 방송사업을 활력있게 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의 가족과 함께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어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이어 최성원방송원과 동태관 론설위원의 집을 찾으시여 그들의 가족을 따뜻이 축하해주시고 한식술의 정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격정의 눈물속에 고마움의 인사를 거듭 올리는 새집의 주인들에게 인민을 위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당풍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세상이라는 말은 그 어떤 표어가 아니고,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손으로 역세게 떠받드는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리야 할 당당한 주인들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뜻깊은 태양절을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체취가 어려있는 터전에 일떠선 인민의 호화주택구를 준공하고보니 수령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들이 수령님의 뜻대로만 사는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숭고한 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

은 수령님의 녀념대로 한것뿐이라고, 아마도 오늘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력이 철거된 대신 그 들안에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것이라고, 한생토록 그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으신것 같이 정말 기뻐하실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떨어지기 아쉬워 걸음걸음 따라서는 공로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앞날을 거듭 축복해주시면서 앞으로 시간을 내어 꼭 다시 오겠다는 은정넘친 약속을 하시였다.

준공식에 이어 경루동에서 살게 될 공로자들과 가족들, 시안의 근로자들은 살림집들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돐을 경축하여



대공연 《영원한 태양의 노래》 진행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제 7 차 4 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진행



중앙 사진 전람회 진행



전국미술축전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진행



조명 축전 진행



국가도서전람회 진행



우표 전시회 진행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진행



제 25 차 태양절료리축전 진행

시 초

위대한 통일업적 천만년 빛나리

그리움의 하늘

유현의

누구나 수령님생각으로 가슴 적시며
그리움에 사무치는 4월의 이 봄날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하늘은
끝이 없는 우리의 그리움이다

바로 저 하늘이더라
겨레위해 마음도 많이 쓰신 수령님
남녘동도 생각이 간절할 때면
한낮에도 한밤에도 창을 열고서
이윽도록 바라보며 떠날줄 모르시던

하늘을 헤가리며 떠가는 구름아
폭염에 가뭄든 남녘의 대지
그리도 걱정하시던 우리 수령님
안타까이 하늘가에서 찾고 찾으시던
그날의 그 비구름 너 아니었더나

밤이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남녘인민들 생각해 참들수 없다시며
생신날 밤에도 바라보신 남쪽하늘
그밤의 별들이 오늘도 찾아
깊은 사연 전하며 밝은 빛 뿌리누나

연백별이 전하는 이야기

리송일

내 나라 협동별 그 어디를 가도
수령님 자욱 어려웠건만
뒤달라라
연백이란 말만 해도 눈곱 찌릿해
지는
이곳에 새겨진 만단사연은

원한의 분계선이 지적인 땅
그 어느곳보다 분렬의 울분이
습내인 곳이어서
수령님 마음도 많이 쓰신 곳
그리도 자주 찾고 찾으시던 땅이여

물고생에 찌들린 남연백별농민들
그 정상이 달팔길 없는 아픔이어서
그들에게 달리는 마음의 문 여시듯
수문을 열어 관개용수 보내주실 때
흘러 흘러간것은 사랑의 생명수

온 나라 방방곡곡 찾으실 때에도
밤길도둑 인민들을 돌보실 때에도
수령님 심중에 비껴들던 남녘하늘가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수 없듯이
우리 다 헤아릴수 없노라
겨레를 위해 기술이신
수령님의 그 심혈의 시작과 끝을

분렬이 가서진 통일의 날 그려보시며
수령님 늘 바라보시던 남녘의 하늘가
삼천리에 통일의 봄 기어이 펼쳐주시려
저 하늘의 태양이 되시여
봄빛남친 이 땅에 해살 가득 뿌리시여라

수령님 통일의 한생 비껴있는 하늘
겨레는 마음속에 정히 안고사노라
하늘처럼 넓은 수령님의 품
그 품에 세세년년 안기어 살며
끝없는 그리움 끝없는 하늘에 수놓으
리라

분계선으로 생때같이 갈라진 남편
속이 라 제만 남은 연백의 내인에게
통일은 반드시 된다 힘을 주시고도
가신 길 되돌아와 두손 다시 잡아주신
그 봄날도 흘러간 세월속에 새겨졌거니

남녘이 멀지 않은 그곳에 가시면
그리운 남녘동도 보여올듯싶어
오신 길 쉬이 떠나지 못하셨고
가셨다 다시 오신 우리 수령님
생애의 마지막 그 날에도
지평이 짙어지고 찾아가신 연백별이여

수령님 이렇게 꼭 오셔야만 하는가고
오열을 쏟던 연백의 사람들
오늘도 그들의 가슴마다에
그날의 눈물이 고이여있고
그날의 걱정이 꿇고있어라

저 멀리 바다 건너 조국땅에서만
어머님의 노래가 울리는것입니다
태양길 경사스러운 이 봄날
이 지역의 우리들도 노래부르웁니다

힘겨웁게 한걸음 한걸음 내걸으시며
그이 생애에 마지막으로 찾으신
그 땅이 바로 여기 연백별이었으니
그날의 그 지평이 마음속에 안아보며
벼바다너머 바라보면 안겨오누나
수령님 안방에 담으시던 남녘의 산야

탑이여, 그 은공 길이 전하리

리철준

여기 평양의 남쪽편에 서있어도
8천만겨레의 가슴에 솟아 빛나고
통일의 앞길 밝히는 등대처럼
삼천리 어디서나 보이여오는 탑
조국통일3대원장기념탑이여

바라보아 두 너인이 정히 떠받든
분계선이 없는 조성의 모습
우리 수령님 80평생
마음속에 소중한 품고사신 내 나라
하나가 된 내 조국의 모습이여

어찌 마음속에만 그려보셨으랴
저 탑처럼 통일조국 높이 일떠세우
시려
한자한자 써가시던 불멸의 대강
자신의 삶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겨레를 때어놓은적 없으시듯이
언제 한번 잊으신적 없으랴 조국통일을

그 누가 밤을 안식이라 했던가
민족의 통일 앞당길 진로를 밝혀
이어가신 사색엔 낮과 밤이 없었거니
심신을 태우신 그 밤들과 더불어
이 땅에 태어난 불멸의 통일대강이여

조국통일3대원칙

영원한 사랑의 노래

김영일

저 멀리 바다 건너 조국땅에서만
어머님의 노래가 울리는것입니다
태양길 경사스러운 이 봄날
이 지역의 우리들도 노래부르웁니다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

통일로 가까이 가고 가시듯
연백별로 오시고 또 오신 수령님
자욱
세월이 지우라 눈비에 씻겨지랴
통일위해 바치신 어머님의 그 로고
연백별은 길이길이 전해가리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그 어이 글밭이라고만 하랴
분렬을 태우는 거센찬 불이 있고
겨레를 묶어세운 위대한 기치 있어
조국통일3대원장 이는
우리 수령님 한생의 업적 어린
민족의 역센 힘 통일조성의 밝은 미래

수령님 지새우신 그밤들의 불빛 여러
기념탑의 탑신은 저리도 눈부시고
수령님 한생의 심혈 쌓이고 쌓여
기념탑의 기단은 저리도 튼튼하거니

오, 바라볼수록 새겨볼수록
수령님 한평생 바치신
로고의 응결체로 안겨오는 탑이여
분렬된 강도에서 오직 하나
통일조선 높이 떠안고 치솟은 탑이여

영원히 전해가다오
조국통일3대원장기념탑이여
통일위해 쌓으신 수령님 그 업적
겨레위해 바치신 어머님의 그 은공
통일조국 삼천리에 빛내여가며
천추만대 무궁토록 전해가다오

수령님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제일동포 우리모두 울게 한 그 은정
해마다 받아안는 사랑이어서
대를 이어 받아안는 은혜이어서
이 노래 부를수록 목메입니다

우리가 풍장을 몇개 못 짓는한이
있어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자고
일본에 단 한명의 조선학생이 있어도
해마다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하시던 수령님 그 말씀

아, 이 세상 어느 시대에
이역땅 자식을 위해 천만품 들여
학교를 세워준 아버지 있었습니까
우릴 낳아 길러준 친어머니도
학교만은 꿈에서조차 줄수 없었습
니다

나라살림 너럭해 배운 사랑 아입니다
수령님 세우신 우리의 대학
어제는 내가 그 전당의 첫 대학생
오늘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배움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강은별

뜻깊은 사연 세월넘어 전해가는
여기 판문점 통일친필비앞에 서니
어제런듯 삼삼하구나
원수님 오셨던 3월의 그 봄날이
바로 이 자리 아니던가
장군님 오셨던 그 자욱따라 오시여
너무도 눈에 익은 수령님의 활달하신
필체
원수님 오래도록 보고 또 보시며
마음속에 정히 새겨안으시던

《김 일 성
1994. 7. 7.》

수령님 한생년월 어려웠는 글밭
자신의 심장속에 새겨있는 글밭
그래서 수령님생각 간절할 때마다
늘 떠오르던 이 친필앞에서
원수님 심중은 그 얼마나 깊으셨던가

수령님과 장군님의 성스러운 통일위업
찬란히 빛내이실 민족의 태양
원수님 향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역척의 신념 다져주는 글밭이여
8천만의 가슴속에 오늘도 솟아 빛나는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돈을 내야 교문을 열수 있는 땅
황금만능 지배하는 차디찬 이 땅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들어서는 조선학교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이
대를 이어 누리는 복에 눈물집니다

나라가 어려워 허허미 줄라매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이역땅 자식을 위해 천만품 들여
학교를 세워준 아버지 있었습니까
우릴 낳아 길러준 친어머니도
학교만은 꿈에서조차 줄수 없었습
니다

그 품 떠나 살수 없는 제일동포
우리들
조국하늘 우리러 목매며 부릅니다
아 원수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도 비기지 못할
영원한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수령님 통일의 한생 비껴있는 하늘
겨레는 마음속에 정히 안고사노라
하늘처럼 넓은 수령님의 품
그 품에 세세년년 안기어 살며
끝없는 그리움 끝없는 하늘에 수놓으
리라

분계선으로 생때같이 갈라진 남편
속이 라 제만 남은 연백의 내인에게
통일은 반드시 된다 힘을 주시고도
가신 길 되돌아와 두손 다시 잡아주신
그 봄날도 흘러간 세월속에 새겨졌거니

남녘이 멀지 않은 그곳에 가시면
그리운 남녘동도 보여올듯싶어
오신 길 쉬이 떠나지 못하셨고
가셨다 다시 오신 우리 수령님
생애의 마지막 그 날에도
지평이 짙어지고 찾아가신 연백별이여

수령님 이렇게 꼭 오셔야만 하는가고
오열을 쏟던 연백의 사람들
오늘도 그들의 가슴마다에
그날의 눈물이 고이여있고
그날의 걱정이 꿇고있어라

저 멀리 바다 건너 조국땅에서만
어머님의 노래가 울리는것입니다
태양길 경사스러운 이 봄날
이 지역의 우리들도 노래부르웁니다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조국통일 3대 헌장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밝히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

립방안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 3대헌장이자,

조국통일 3대 원칙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주체 61(1972)년 5월 3일 자정이 훨씬 지난 깊은 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과 남사이의 고유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측 대표를 만나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주석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 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확고히 세우야 한다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계속하여 일찍부터 구상하여오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될 조국통일 3대원칙을 조항별로 하나하나 짚어가시며 그 본질적대

용과 정당성을 사리정연하게 밝히시었다.

이렇게 되어 조국통일3대원칙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해 7월 4일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었다.

7.4공동성명은 발표되자마자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3대원칙에 대한 합의 및 발표는 우리 민족의 자랑일뿐 아니라 그 민족적정신을 세계에 그대로 보여준것》, 《7.4공동성명은 새 민족사의 서장》, 《자주통일의 거북》 등으로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결의들을 표시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정부들과 정당, 사회단체들도 북남공동성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뻐하신 《승고한 념원과 불변불이성의 노력의 결실》, 《주체사상의 가장 빛나는 승리》 등으로 격찬하면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힘과 리익에 맞게 민족자주의의 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주의의 힘을 발휘할수 있는 근본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1993년 봄 당시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엄중한 시기에 자주통일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길을 다시금 명시한 통일의 대강이 전세계에 울려 퍼졌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993년

4월 6일 한조창조창 완성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하시었던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총론과 10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총론에는 강령의 기본사상이 천명되어있고 제1조에는 전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가, 제2조에는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 제3조에는 민족대단결의 원칙,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민족대단결의 방도가 명시되어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통일의 큰 열쇠》, 《통일의 지름길》, 《7천만겨레의 오늘의 좌표와 래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민족통일의 대강》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와 조국통일의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망은 날로 높아갔다. 조성된 정세는 전민족대단결의 통일방향을 반영한 새로운 획기적인 통일방도를 마련할것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 69(1980)년 10월 10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융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공동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 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헌법과 의무를 지니고 각 자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접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궤발》, 《뜨거운 통일열정과 애국심의 결정체》로 칭송하였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이다.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궤발》, 《뜨거운 통일열정과 애국심의 결정체》로 칭송하였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이다.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궤발》, 《뜨거운 통일열정과 애국심의 결정체》로 칭송하였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이다.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궤발》, 《뜨거운 통일열정과 애국심의 결정체》로 칭송하였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이다.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궤발》, 《뜨거운 통일열정과 애국심의 결정체》로 칭송하였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이다.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궤발》, 《뜨거운 통일열정과 애국심의 결정체》로 칭송하였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이다.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궤발》, 《뜨거운 통일열정과 애국심의 결정체》로 칭송하였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이다.



통일을 불러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로 (5)

갈라진 나라의 통일을 누구보다 절절히 갈망해온 한덕수선생은 조국통일사업을 총련의 중요한 애국사업으로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1972년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일구웠던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서광을 안겨준 의미깊은 사변이었다.

한덕수선생은 동포들속에서 7.4공동성명에 대한 선전전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민단》과 7.4공동성명을 지지하는 공동모임이나 공동행동을 벌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그러하여 제일동포들속에서 범민족적인 남조선인본 《회담》을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는데 총련이 일본전선에서 조직한 군중집회에는 수많은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미일반동들과 남조선반동분자들의 민족분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일동포들의 투쟁의 선두에는 항상 조국통일주호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메가폰을 손에 든 한덕수선생이 서있었다.

일본에 있는 《민단》과의 단합사업을 강화하여야 한사람이라도 많은 동포들을 통일애국의 대오에 묶어세울수 있다는것을 자각한 그는 《민단》과의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한덕수선생은 《민단》동포들과 일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남조선인본 《회담》의 애국적본질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안을 인내성있게 해설하였으며 총련과 《민단》동포들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설것을 꾸준히 호소하였다.

한덕수선생을 비롯한 총련인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수많은 《민단》동포들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총련동포들과의 공동행동에 나서게 되었으며 미조직동포들, 일

본의 광범한 인민들이 여기에 합세함으로써 미일반동들과 남조선의 박정희독재국 《정권》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1972년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일구웠던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서광을 안겨준 의미깊은 사변이었다.

한덕수선생은 동포들속에서 7.4공동성명에 대한 선전전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민단》과 7.4공동성명을 지지하는 공동모임이나 공동행동을 벌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그러하여 제일동포들속에서 범민족적인 남조선인본 《회담》을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는데 총련이 일본전선에서 조직한 군중집회에는 수많은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미일반동들과 남조선반동분자들의 민족분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일동포들의 투쟁의 선두에는 항상 조국통일주호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메가폰을 손에 든 한덕수선생이 서있었다.

일본에 있는 《민단》과의 단합사업을 강화하여야 한사람이라도 많은 동포들을 통일애국의 대오에 묶어세울수 있다는것을 자각한 그는 《민단》과의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한덕수선생은 《민단》동포들과 일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남조선인본 《회담》의 애국적본질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안을 인내성있게 해설하였으며 총련과 《민단》동포들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설것을 꾸준히 호소하였다.

한덕수선생을 비롯한 총련인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수많은 《민단》동포들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총련동포들과의 공동행동에 나서게 되었으며 미조직동포들, 일



한덕수선생

취향들을 요구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적극이바지하였다.

그후에도 한덕수선생은 총련조직들에서 《유신체제》를 부지하러는 미국과 《유신》파조찬당들의 책동을 날날이 발가놓으며 열작과 단결로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기를 앞당기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적극적인 조국통일5대방침을 천명하시였을 때에도 한덕수선생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일꾼들과 동포군중을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총련은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이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북남조선 《유엔통일가담》을 제기한것과 관련하여 1973년 8월하순부터 한달동안에 걸쳐 그것을 반대배격하며 북과 남이 단일국호로 유엔에 가입할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전 동포적으로 진행된 이 서명운동에는 《민단》동포들을 포함하여 각계각층 성인동포 약 25만 명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제일동포들의 모두가 망라된 류례가 드문 대중운동이었다.

한편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가 상정되는 기간 총련의 각급 기관들과 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은 유엔사무총장에 게 4 200여명의 전보와 편지, 요청서를 보내어 유엔이 조선의 통일에 도움을 주는 실제적조치를

취재무대에서 총련의 대외활동이 강화됨으로써 총련의 존재가 보다 크게 국제적아시아에 들게 되었으며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의 목소리가 세계도처에서 더욱 힘있게 울려나오게 되었다.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대단결의 진로를 밝힌 강령적지침

오는 18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은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신 24돐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87(1998)년 4월 18일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의 50돐기념 중앙연구소토론회에 《은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서한을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의 첫째 체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민족대단결의 승고한 모범을 창조하시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결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의 정당성은 우선 그것이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승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연합의 사상이라는데 있다. 그리고 우리의 우수한 민족성을 고수하고 높이 발양시키며 민족수난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사상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에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서술하시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를 비롯하여 혁명령도의 전기간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시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

결10대강령》은 그이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의 둘째 체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로작에는 우선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강조되어있다. 민족적단결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단결이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 민족의 단결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오직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메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역량으로 될수 있다. 온 겨레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로작에는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사상감정이다. 반세기이상이나 갈라져 살아온 북과 남사이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있고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도 서로 다르지만 오늘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과업은 조국통일이며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속시켜야 한다. 로작에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 하면서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력사적로작이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과학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총서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전쟁의 주범은 미국》

— 남조선에서 《한미연합전쟁연습 영구중단 촉구 경남자주평화대행진》 진행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9일 창원에서 《한미연합전쟁연습 영구중단 촉구 경남자주평화대행진》을 진행하였다. 행진에서 연설자로 나선 6.15공

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대표는 《전쟁이라는 참혹하고 끔찍한 일을 이 땅에서 벌어지고 하는 주범은 바로 미국》이라고 하면서 《분단이후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과 수많은 일족족발의 전쟁위기는 모두 미국이 있었다.》고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미국이 지금처럼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무기를 팔아먹는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윤석열정권이 만들려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하

기 짝이 없다. 《선제타격》이니, 《버리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느니 하는 악담이나 하는 윤석열의 주변에는 온통 벼속까지 진미, 친일분자들과 동족대결분자들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주세상,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로 힘차게 행진해가자》고 호소했다.

집회후 참가자들은 《국민의 힘》 경남도당까지 행진을 하면서 북을 팔아먹는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9일 창원에서 《한미연합전쟁연습 영구중단 촉구 경남자주평화대행진》을 진행하였다. 행진에서 연설자로 나선 6.15공

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대표는 《전쟁이라는 참혹하고 끔찍한 일을 이 땅에서 벌어지고 하는 주범은 바로 미국》이라고 하면서 《분단이후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과 수많은 일족족발의 전쟁위기는 모두 미국이 있었다.》고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미국이 지금처럼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무기를 팔아먹는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윤석열정권이 만들려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하

이 땅에 솟아난 웅장화려한 인민사랑의 기념비



웅장하게 솟아오른 송화거리



얼마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인민의 리상거리로 웅장하게 솟아오른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어 공화국인민들을 크게 기쁘게 해주고 있다.

시원하게 뻗어나간 대통령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현대적인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교육, 보건, 편의봉사시설들, 고가다리, 장식구조물들이 특색있게 조화되어 조형화, 예술화와 호상성, 연결성, 실용성이 높은 수준에서 조망된 송화거리와 수도의 중심부를 감돌아흐르는 경치 좋은 보통강반을 따라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형성하고 다층, 소층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조화를 이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사람들은 테스트하게 보지 않는다.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야말로 최악의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속에서 솟아난 사회주의선경,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올라야 할 절세위인의 불같은 신조에 의하여 이 땅에 일떠선 인민사랑의 기념비이다.

이렇듯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불같은 인민사랑에 떠받쳐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별천지인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서게 되었다.

하기에 궁궐같은 새집을 받아안은 로력혁신자들과 평범한 근로자들은 꿈같은 현실 앞에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하여 자신들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제가 나라를 위해 일을 했다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너무도 한 일이 없는데 이런 훌륭한 새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고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앞으로 일을 더 잘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하늘 같은 은덕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같은 평범한 노동자가 이런 궁궐같은 새집을 받아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꿈같은 현실 앞에 우리 나라가 제일이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찡니다.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새집을 받아안은 사람들의 심장의 토로이다. 진정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인민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복무로 일관시키고 위민헌신의 날과 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비범한 정치실력과 열렬한 조국애,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위대한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절세위인상을 광범한 세계인론들이 높이 정송하고 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인기있고 대단히 매력있는 정치가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 계신다. 각국의 주요인론들이 김정은원수님을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정치가), (따뜻한 인정을 지니신 인민적인 정치가),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지도자)로 찬양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21세기 세계정치계가 주목하는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을 모시어 조선의 미래는 더없이 밝고 창창하다.》(로씨야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폰-베르쇼날》)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계승하시어 조선을 이끌어오신지 10년이 된다. 지난 10년간 조선은 만사람을 경탄시키는 놀라운 변화들을 이룩하였다.》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가장 확실성있게 담보하시려는 그의 단호한 결심에 의하여 조선은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가게 되었다.

국무위원장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위민헌신의 길을 위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내부적으로 더욱 단결되고 하나같이 부흥하며 외부적으로 보다 강해지고 국제적지위를 높여나가는 조선의 모습은 보편적 사람들은 새로운 초강국의 등장을 축하하고 있다.》(네팔신문 《그레이터 네팔》)

한 담보를 마련하셨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해주시어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존엄 높은 강국의 인민이라는 긍지를 한껏 터치고 있다.》(캄보디아의 아가베통신)

《김정은원수님께서 모진 시련과 고난속에서 나라의 국가방위력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 인민들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셨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해주시어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존엄 높은 강국의 인민이라는 긍지를 한껏 터치고 있다.》(캄보디아의 아가베통신)

본사기자

《가장 인기있고 대단히 매력있는 정치가》

제카나다동료 최최최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정휴양제를 통한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정휴양제는 국가가 정양소와 휴양소들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나라의 곳곳에 있는 경치 좋은 명승지와 온천, 약수터 등을 인민을 위한 정양소와 휴양소들을 건설하도록 하시고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휴식을 위해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정휴양에는 일하면서 혜택을 받는 정양과 건강회복을 기본으로 하여 혜택을 받는 정양, 문화휴식을 위한 휴양, 가족휴양 등이 포함된다.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금강산, 묘향산, 철보산 등 명산들과 약수, 온천들이 있는 풍치수려한 곳들에 건설된 휴양소들과 그리고 기관, 기업소들과 그 가까이 설치된 정양소들에서 즐거운 휴식을 하고 있다. 정휴양생들은 정휴양기간 매끼 국가가 정한 영양식사를 공급받고 있다. 이밖에도 근로자들이 휴양소에 오갈 때와 명승지들에 대한 답사때의 경비와 식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있으며 휴양소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국가사회보험에 산에서 지출하고 있다. 농장원들에 대한 휴양은 겨울에 조직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상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체육문화휴식기지로 일떠선 양천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각지의 휴양소들과 정양소들, 문화정서생활기지들마다에서 인민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보건제 도하에서 꽃피는 인민사랑의 건설

공화국에서는 의료인원들이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증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이 매일과 같이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후덥게 해주고 있다.

얼마전 취재차로 광산군인민병원을 찾았던 우리는 이곳 의료인원들속에서 발휘된 미덕, 미풍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었다. 문장리에서 살고있는 한군부녀성이 여러 합병증으로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였다. 혈압은 떨어지고 맥박은 거의 나 알리지 않아 환자상태는 위급하였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살려내기 위한 긴급조치들을 취하고 협의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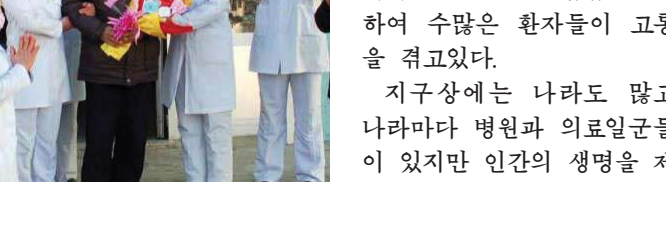
《현재 환자는 협심증과 산부인과질병을 비롯한 여러 합병증으로 하여 대단히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자의 몸

상태를 최대로 고려하여 치료방안을 세우시다. 《뜨거운 정성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환자를 완쾌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을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환자의 건강을 추켜세우기 위해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기도 하고 성의껏 준비한 영양음식들을 들고 찾아오는 의사, 간호원들의 모습은 한군부녀성의 마음속에 남이 아니라 천혈육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이런 뜨거운 정성이 있어

도민병원에 입원하였었습니다. 제가 눈앞이 캄캄하여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을 때 병원에서 환자의 회복을 위해 협의회를 여러 차례 진행 하고 필요한 치료대책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수술후 남편의 건강은 현저히 회복되었습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고마운 이 제도를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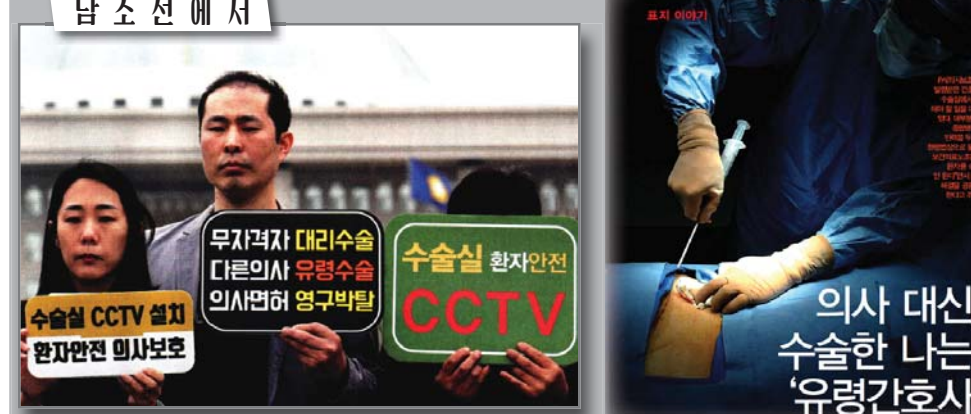
범죄집단으로 비난받는 병원

남조선잡지 《주간경향》에 실린 아래의 기사는 환자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남조선병원들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의료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곳은 어디일까? 병원이다. 의료법위반은 의료인들사이에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대리처방은 물론이고 대리료 의료행위를 일삼는 곳이 병원이다. 의료기관폐쇄사 영업직원이 대리수술을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숨졌다. 만약 환자가 숨지지 않았다면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을까? 이처럼 의료법위반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할 경우 소송에서 어떻게 이긴다한들 건강이나 목숨은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위반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료양병원이다. 료양병원은 받는 금액이 일정하기때문에 환자

에게 쓰는 돈을 아끼도록 병원원이 몰라간다. 그래서 주사기 등 1회용품의 재사용은 말할것도 없고 감염위험때문에 한번 쓰고 버려야 하는 수액 하나를 한두달씩 여러명의 환자에게 돌려가며 쓰고 있다. 더 끔찍한건 병원들이 환자들의 고통에 무감하다는 점이다. 한 료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말기암환자에게 투여되는 진통제를 원래 서던 용량의 10분의 1로 줄여서 주었다고 했다. 분만통증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암성통증에 가짜약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진통제를 투여하면 편안해 질수 있는데 진통제값 몇푼을 아끼려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고통속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하고있으니 너무 끔찍했다.

이처럼 의료법위반은 주로 병원이 리움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개인인달이 아니라 병원이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인것이다. 의사나 간호사에게만 허락된 의료행위를 해당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시키고 직원들에게 의료법을 위반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지시하고 방조하는 병원,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것에 너무나도 무감각한 병원들...

서울 한복판에는 이런 범죄자들이 가득한 소굴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이 범죄자라는 인식이 별로 없다. 정부는 이 범죄자들을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면 병원은 합법적인 범죄집단인가?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의사 대신 수술한 나는 '유명간호사'

시론 특등 친미주구들의 비추한 추태

얼마전 남조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이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를 돌아왔다.

력대 《대통령》 당선인치고 남조선군부를 돌아보는 기회에 그 주변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는 경우는 있었지만 윤석열처럼 《대통령》 병거지를 쓰기 바쁘게 미군기지를 돌아본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

미군기지에서 놀아낸 꼴은 더욱 역스럽기 그지없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보다 높일 것다느니,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한 《역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 하겠다느니 하는 따위의 나발을 불어대면서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과 대결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는가 하면 지어 미군사병들 앞에서 저들이 누리고있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미군의 《헌신》과 《희생》이 가져다준 것이라고 하면서 노족을 떨었다.

미국상전의 비호밑에 비후한 명줄을 부지해보려는 해괴한 야망이고 비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미군기지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동지를 틀고 조선반도와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전략실현에 도용하고있는 해외전초기지, 침략전쟁기지이다.

뿐만아니라 수십년동안 틀고앉아 각종 유해물질을 배설하여 남조선 땅을 불모지로 만들고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반인륜적범죄로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뜨우는 강점자, 범죄자들이 서식하는 화근덩어리, 악의 시궁창이기 도 하다. 남조선인민들이 오래전부터 《남이 사는 내 땅》이라며 울분을 토해왔던 배앗긴 땅이다. 그런 곳에 《대통령》감투를 쓰게 된자가 체면마저 췌버리고 제일 먼저 기수가 찾아가 미군사병들과 히터덕거리며 비굴한 언행을 연발하다 못해 동

족을 걸고든 못된 망발을 췌짓고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을 영원히 상전으로 받들고 남조선을 통째로 미군의 침략기지로 삼겨바치며 상전의 의도대로 동족과의 전쟁대결과 해외침략을 위한 들격대로 서슴없이 나서겠다는 흉심의 발로이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다고 윤석열자체가 친미와 대결에 환장하였으니 그가 미국에 보낸 그 무슨 《한미정책대표단》이라는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고위급자들을 줄줄이 만난 자리에서 그자들은 윤석열의 대결적인 《대북정책구상》에 대한 지지와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재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항시적인 전개, 《포괄적인 동맹관계확대》에 대해 구걸하였다.

윤석열의 미군기지행각들과 그 떨거지들이 태평양 건너에서 부러워

행태야말로 미국의 특등주구, 사대 매국노로서의 정체를 더욱 여실히 드러낸 추악하고 비굴한 추태이다.

미국에 기생하지 않고서는 《정권》유지도, 정책 하나도 세울수 없는 가련한 정치머슴이 바로 윤석열 떨거지들이다.

미국의 꼭두각시노릇밖에 못하는 이런 열간망둥이, 식민지노복들때문에 앞으로 온 남조선땅이 미국의 침략전쟁기지, 핵전쟁화약고, 생태환경이 무참히 파괴된 불모의 땅으로 더욱 전락되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수년전의 과국상태보다 더한 지경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금처럼 미련하게 놀아대다가는 비참한 종말을 고한 선민자들을 처럼 일기의 분분조각을 분산과 고통속에 보내게 된다는 것을 윤석열과 그 패당들은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정 필

아름다운 마음편히 지내려면

최근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에 흔비백산한 남조선당국은 《북이 핵보유국지위를 거론한데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있다》,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할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관계자들을 미국에 급파하여 추가적인 대조선 《제재결의》조작에 가담할것을 약속하였는가 하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는 등 미국과의 《공조》에 더욱 극성스레 매달리고있다.

윤석열패들이 놀아대는 꼴은 더욱 가관이다.

윤석열이 직접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를 돌아치며 《한》미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강화를 운운하는가 하면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에 보내어 《COVID》,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력강화, 《한미정상회담》개최문제를 논의하는 등 상전에게 바짝 달라붙고있다고 한다.

죄지은자 발원잡을 못잡다는 말도 있듯이 남조선당국과 윤석열패들의 행태야말로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에 잔뜩 겁을 먹은 열간망둥이들의 가소로운 객가리 하겠다.

아마도 놀아가는 안보불안을 녹찾히는 길은 미국에 기대는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개공도 이런 개공이 없다.

다 아는것처럼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의 그 어떤 형태의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명하고 그

힘을 남김없이 뽐냈었다.

에당초 남조선은 핵강국인 공화국무력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과 윤석열패들이 미국과의 《공조》강화논의에 매달리고있는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 미국과 함께 공화국의 핵타격대상으로 나서겠다는 천하의 바보짓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한국대학생진보련합》,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전국민중행동, 《민주개혁연성, 평화변영동맹을 위하여》(초보진진), 민주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지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촉구 자주평화대회》, 《평화대행진 걷기대회》와 같은 반미투쟁을 벌이고 《대북선제타격》이니, 《쌍드》추가배치하는 윤석열의 망언을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강하게 비난하면서 대결정책회화를 요구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끔찍한 말로써 피하는 길은 사소한 오란이나 자극적인 언동, 미련한 군사적방상을 삼가하는것밖에 없다.

남조선당국과 윤석열패들이 하루라도 편히 지내려면 친미사대행위와 상대를 매입이 자극하는 분별없는 추태를 걸어치우고 지속하고 또 지속하는것이 옳은 처사일것이다.

본사기자 박명성



미군기지의 발암물질 기준치의 510 배이상

남조선언론 《YTN》이 전한데 의하면 현재 국방부청사주변에 있는 통산미군기지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이상 검출된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미군기지의 담장아래서 지하수를 채취한 결과인데 더 큰 문제는 미군기지반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지안의 오염상태는 전혀 알 수도 없다는데 있다.

이전에도 그 미군기지에서 기름류 등 환경오염사고가 일어난 실례가 100건이나 된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국이 통산일대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하였지만 기지이전비용과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부지반환률은 아직 10%대에 머물러있고 공원조성완료시점도

2028년, 2045년 등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통산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너스레를 떨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오염정화없이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정 시정배들의 너절헌 관부극

남 조선에서 《정권》교체시기가 다가올수록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사이의 갈등과 대립도 더욱 첨예해지고있다.

개와 고양이 싸움을 런상게 하는 여야싸움은 검찰개혁문제를 둘러싸고 날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대법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과 관련된 검찰의 직 접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개정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 하고있다.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특히 검찰총장출신의 대통령이 또다시 복직해지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검찰간에 갈등이 불거지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내부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정국이 또다시 복잡해지고있다》고 전하고있다.

현재 새 《정부》의 인사문제와 지방자치제선거를 둘러싼 여야간의 아귀다툼도 시간이 흐를수록 치열해지고있다.

윤석열이 추천한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후보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엄밀히 따지는 《송

석열혼들지》라고 반발하면서 악을 쓰며 반대해나서고 있다.

얼마전에도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내세워 《더불어민주당이 로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하고있다》, 《이는 명백히 검찰부패화시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쪽을 막아내려했다》고 악평을 두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망동에 검찰패거리들까지 합세해나서는 바람에 남조선정국이 더욱 달아오르고있다.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로골적으로 반대태도를 내보였으며 편이러 긴급회의들을 소집하여 검찰의 직 접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개정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 하고있다.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특히 검찰총장출신의 대통령이 또다시 복직해지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검찰간에 갈등이 불거지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내부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정국이 또다시 복잡해지고있다》고 전하고있다.

현재 새 《정부》의 인사문제와 지방자치제선거를 둘러싼 여야간의 아귀다툼도 시간이 흐를수록 치열해지고있다.

윤석열이 추천한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후보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엄밀히 따지는 《송

꽃검증》을 들이대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양탈질을 부리며 맞서고있다.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리재명영합론》이 떠오르는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사람이 다시 지방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검찰수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떠들었다.

인민들이야 죽든살든 상관없이 오직 당리당략에만 미쳐돌아가는 정치시정배들의 추악한 판투구는 남조선 각계층의 비난과 분노만을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대선승부가 판가름난 3월 10일은 《총선》이 아닌 《후선》의 날이었다. 그것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 아주 짧은 후선이 되고말았다》.

이것은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이 현재 정치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윤석열의 《대통령》사무실이전행과 관련하여 보도한 기사내용중의 한 대목이다.

계속하여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무실이전문제에 대해 당시 열흘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비난하고 그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선불복》, 《발포작기》라고 반발하고있는데 대해 전하면서 아무리 전쟁같은 선거를 치

르어도 이렇게 신, 구 《정권》이 대결하는것은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평하였다.

남조선언론과 정치권만이 아니라 각계층 인민들도 불만을 토로하고있다.

이전에 드는 막대한 현세를 경제위기로 생활난에 허덕이는 서민구제나 차제대로 인한 피난민구제와 같은데 돌리는 편이 낫다. 윤석열의 눈에는 이런것이 보이지 않는가. 윤석열이 《대통령》사무실의

이전이라 《소통없는 이전》이라는것이 민심의 목소리이다.

그런가 하면 시국이 어떤 때인데 생뚱맞은 사무실이전 전용인간, 차라리 청와대 옮기는 기본복도는 귀신이 정해준 불길한 운명을 피하려는데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과 그 패거리들을 비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의 사무실이전 통합하고 업무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데도 술한 자금을 쏟아야 하며 새로 틀고있을 청사주변에 추가군사시설을 구축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윤석열이 민생고나 민심은 아랑곳없이 제 집무리기, 《대통령》사무실이전놀음에 만 급급하고있으니 남조선 각계층의 지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강권과 전횡, 독단과 독선, 독주에 어떤 정치를 놓고 인민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주겠는가 하는것은 지켜보지 않아도 변하다.

본사기자 천명진

《제식구끼리 나누어먹기식 회》라고 혹평하였다.

총체적으로 윤석열패들의 최근 《정부조직개편》 움직임은 자기의 무능과 독단, 교활성을 가리우기 위한 유희한 속셈에 따른것이다.

그런자들이 어떻게 민생을 인식시키고 《공정과 상식》을 세울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나 이제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권》이나 다 기대할것이 아무것도 없는 갈고같은 《정권》, 이놈도 저놈도 다 믿을게 못된다것이 남조선인민들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정부조직개편》으로 드러난 무능과 흥심

《국민통합》? 제 코도 못씻는데

요즘 남조선의 《국민의힘》내부가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정권》이라는 큰 고기덩어리를 물어다놓고는 저저마다 살점 하나라도 더 먹어보려고 으르르대는 개부리를 런상게 한다.

이미전부터 리준석사이의 알뜰과 갈등이 더욱 표출된것을 대표적실례로 들수 있다.

윤석열은 보수당내의 자기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심복들을 내세워 여성가족부까지 등 당대표 리준석이 벌린 놀음에 대한 비방 여론전을 벌리는 한편 자기의 초동력교동창인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윤혁관》의 만행으로 불리우는 권성동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들여앉힘으로써 당권장악의 발판을 마련해놓았다.

윤석열의 이런 공세에 가만히 있으면 《싸움닭》 리준석이 아니다.

그는 그대로 당사무총장, 대변인 등의 요직에 제 심복들을 들이앉히기 위한 당직개편을 강행하여 당체제를 자기중심으로 전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정치청문회》 윤석열과 《예승이》 리준석사이의 대립도 그 러하지만 지방자치제선거를 둘러싼 각 계파들사이의 《후보출마 경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우시정배보좌리단 보아도 윤석열의 심복인 《국민의 당》 최고위원인 김재원과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국민의힘》안에서 윤석열과 경쟁하였던 홍준표, 박근혜의 변호사 류영하 등이 저저마다 나서 자기가 대구를 살릴 사람이라고 광고하기에 여념

이 없다.

윤석열과 박근혜의 심복들이 노는 꼴에 화가 난 홍준표는 《대우시정배선거선인정대통령팔이, 대통령선인정선선거로 변질되었다》고 불리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외에도 박근혜의 사면으로 으쓱해져 《국민의힘》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친박근혜세력도 이에 맞서고있는 비박근혜파의 갈등과 모순, 《공동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윤석열 패와 《국민의 당》 안철수파사이의 모순과 갈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하여 《국민의힘》은 사분오열의 직전에 있다.

특히 지난 3월 30일 윤석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있는 《국민의 당》 대표 안철수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요직에 자기의 측근들을 동용해달라고 추천했으나 윤석열패들은 그에 대해 의뎉하였으므로 이에 불만을 품은 안철수의 최측근인물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에서 공식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철수패들과 윤석열패당과의 모순과 대립이 고조되고있다.

집안싸움이 그치지 않고 날로 격화되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이 계파갈등과 대립으로 집권 초기부터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현재 대립과 갈등이 분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있다.

민심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에만 미쳐돌아가는 이런 정치시정배들이 그 무슨 《국민통합》을 운운하고있으니 참으로 가소롭다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정부조직개편》이 미루어지는데 갖게 새 《정부》의 첫 내각도 현 《정부》의 행정기구체대로 구성된다고 한다.

《정부》가 비태하고 현 세만 추낸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인데 이제와서 아닌보살인가.

그럼수밖에 없는것이 원래 안을 그냥 고집하다가가는 어

여소야대의 현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가망도 없다.

미루수밖에 없는 《정부조직개편》은 바로 《대통령》감투를 쓰게 된것으로 하여 기고만장해진 윤석열패들의 과욕이 낳은 결과이다.

이부자리를 보고 말은 퍼라 한것처럼 그들의 능력이 겨우 그 정도인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이 미루어지는데 갖게 새 《정부》의 첫 내각도 현 《정부》의 행정기구체대로 구성된다고 한다.

《정부》가 비태하고 현 세만 추낸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인데 이제와서 아닌보살인가.

그럼수밖에 없는것이 원래 안을 그냥 고집하다가가는 어

로 상승하였다고 한다.

부채규모도 파국적인 수준에 이르렀고있다.

현재 남조선에서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규모가 력 사상 처음으로 4조US\$를 넘어섰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남조선의 부채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다고 하면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남조선의 가계부채비율은 62.2%나 더 높아졌으며 《정부》부채비율은 2020년-2026년사이 18%나 증가할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무역수직자도 위험계선에 이르렀고있다. 남조선정부는 2021년 12월에 이어 2022년 1월에도 1966년부터 무역통계 집계를 시작한이래 가장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월과 3월에도 연속 무역적자를 내는 등 14년만에 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류현철

발로 실각해키는 경제난



관상적 효과가 큰 말린꽃제품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명철이나 생일을 비롯한 의미 있는 날들에 축하의 의미를 담아 아름다운 꽃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생화는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 본래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말린꽃제품은 장수와 계절

에 관계없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천연기념장식품이다. 이런 말린꽃제품들을 공화국의 《앞날》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10여개를 넘는다. 매 개체가 다 자기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추억깊은 날들을 그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더해주고있다. 다양한 꽃을 가지고 만든 말린꽃제품들은 꽃잎의 색과 탄성에서 거의나 생화그대로의 특성을 살리고있으며 그 제작에 쓰인 하나하나의 재료가 모두 식물에서 수집한것으로서 자연그대로의 정서를 안겨준다. 관상적효과와 보존성이 좋고 예술적정서와 기념품의 의미가 하나로 결합된 말린꽃제품은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장기

조선장기는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즐겨온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고려시에는 장기를 《판상회》라고 하였는데 그때 장기의판의 선은 세로 14줄, 가로 15줄이었으며 200여개가 넘는 교차점으로 되어있었다. 그후 조선봉건조시기에 들어와서 장기의판의 선이 세로 9줄, 가로 10줄로 되어 노는 방법도 고려때보다 더 간편해졌다. 장기는 두사람이 놀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놀수도 있는데 편을 갈라서 노는것을 《편상회》라고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장기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글자를 쓴 장기쪽과 장기판으로 놓았는데 수가 놓거나 나이가 우인 사람이 붉은색장기쪽을 가졌으며 푸른색쪽을 가진 사람이 장기를 먼저 두는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있었다. 그 수가 깊고 두는 사람마다 제나름의 식과 수가 있어 전술 또한 매우 다종다양한 조선장기는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하는데 따라 장기를 두는 사람의 성격과 지혜가 잘 나타나는 흥미있고 명랑한 오락이다.

본사기자

묘향산과 금강산에서 새로 발굴된 역사유물들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산들이 묘향산과 금강산에서 우리 민족의 유구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유물들이 새로 발굴되었다.

묘향산 천태봉정점에서 발굴된 불상은 약사여래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놓인 일광보살상과 월광보살상으로 이루어진 금은약사여래3존불상이다.

공화국의 고고학학회에서는 새로 발굴된 불상들이 고려시기의 유물로서 불상의 형상수법과 제조년대 및 방법 등을 연구하는데서 학술적의의가 크고 공화국의 유물들 가운데서도 손꼽힐 정도로 국보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금강산에서 나온 금동아미타여래3존불상은 아미타여래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으로 이루어져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분석연구소에서 주사전자현미경분석법으로 불상들의 재질을 분석한데 의하면 묘향산에서 나온 불상은 은을 주성분으로 하고 결면에 금도금을 하였으며 금강산에서 나온 불상은 동, 석, 연으로 이루어진 청동결면에 금도금을 하였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어머니! 어머니!》이젠 혼자 갈수 있을거요.》하고 돌아서는데 처녀가 그의 앞을 막아나섰다. 《저... 전 무서워서 혼자



금은약사여래 3존불상



금동아미타여래 3존불상



봄나물의 약효

❖ 사라구 씹쌀한 맛이 특징인 사라구의 쓴맛은 입맛을 돋구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봄철에 입맛이 없을 때 새콤하게 무쳐먹으면 좋다. 사라구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여 소화기능을 좋게 하고 열병과 속병을 치료할뿐 아니라 열골과 눈동자가 누렇게 되는 증상을 없앤다. 또한 출근중에 시달리고 기침을 많이 할 때, 입이 쓰고 마르면서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좋다.

❖ 더덕 더덕에는 갖가지 영양물질과 함께 인삼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사포닌성분들이 들어있다. 특히 뿌리에는 단백질, 당질, 조섬유, 미량원소와 비라민이 풍부하다. 이로 하여 더덕은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삭이여 기관지, 폐염 등의 질병을 치료하고 허약한 몸을 추새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봄철에 들은 만만한 어린잎과 순은 나물로 먹을수 있으며 뿌리는 캐서 연한 소금물에 담그었다가 쓴맛을 우려낸 후 생채, 장절임을 만들어 먹는다. 본사기자



사라구설기떡



더덕볶음

올바른 효도 (3)

글 엄 창도, 그림 채대성

비록 크지 않아도 아름다운 소나무가 울창하여 한낮에 조차 어둡스런 통수산의 그 소나무숲속에서 군사들이 벌리는 돌팔매싸움놀이를 본따 술방울을 따던지면서 뛰어들던 어린시절이 오솔길에 가지들 드리운 소나무우듬지에 어리어왔다. 동심이 충동한 김의원은 땅에 닿을듯 가지들 길게 드리운 로송으로 다가가 술방울을 따들었다. 술방울을 어루만지느라니 어린시절의 송아지친구들이 생각났다. 그 송아지친구들중의 몇사람은 경관에서 함께 군역을 지고있는데 그들도 함께 변방의 군진으로 가자고 언약했었다.

김의원이 시원스레 큰숨을 내쉬며 《좋은 친구들이야.》하고 중얼거리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어떤 녀인의 새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앗! 승냥이다, 사람 살려주세요!》 뜻밖의 비명소리는 치책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어서부러 무슬을 착실하게 닦아온 김의원은 그 즉시

할바를 알아차리고 창을 꼬나들었다. 소리난 앞쪽으로 버락같이 내달리니 불과 수십보 못미친 작은 골짜기에서 한 녀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아우성을 치고있었다. 해는 짙자 저물어 어슬넷이리지만 배불리지는 반말이 그를 대신하여 얼마든지 앞을 가려볼수 있었다. 엄지깨만한 대어섯마리의 승냥이가 외대머리를 한 처녀의 앞에서 당장 그를 물어제길것으로령대고있을것을 본 김의원은 창대를 휘두르며 버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창 받아랏!》 처녀를 밀막으며 내리친 창대에 면바로 맞았는지 한눈이 《깡!》소리를 지르며 너부러졌다. 그 순간 다른 놈이 자기를 향해 미친듯이 달려들어 왼팔을 물어뜯으려는 찰나 김의원은 오른주먹을 힘껏 내질렀다. 수박피로 다져진 그의 턱 주먹이 승냥이의 눈두렁이에 날아들자 어찌나 호되게 얻어맞았는지 팔을 물었던 승냥이는 단때에 너부러지고말았다. 《아가기!~》 처녀의 비명소리였다.

섬중이 채 가셔지지 않은 얼굴에 약간의 화색을 띠우며 가깝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김의원이 처녀의 발밑에서 바구니를 집어드니 그안에는 도라지 같은것이 만나마 차있었다. 《아니, 이게 도라지가 아니요? 이 많은 도라지 뭇하려고?》 이젠 어느 정도 안심이 되

으로 사나운 산짐승들이 싸다니는 깊은 산에까지 오르다니... 알고보니 처녀는 화장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길가마을에 살고있었다. 처녀를 데리고 큰길로 되돌아오는 김의원이 《랑자! 이젠 혼자 갈수 있을거요.》하고 돌아서는데 처녀가 그의 앞을 막아나섰다. 《저... 전 무서워서 혼자



였는지 처녀의 말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저... 그건 도라지가 아니고 더덕이와요. 사실 요즘 저희 아버님이 기침을 하면서 입맛을 잃었는데 저기엔 의원님 말씀이 더덕이기가 좋다고래 더덕이 나는 이 산에 올랐다가 그만...》 《이보시오, 랑자! 승냥이놈들이 다 망쳤소.》 그제서야 처녀는 아직 무

말해 무엇하겠는가. 밤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도와주어야지. 김의원은 처녀와 함께 그의 마을로 향하였다. 처녀는 제 집마당에 이르기 바쁘게 안아대고 소리쳤다. 《어머니! 어머니!~》 방문이 열리며 한 녀인이 토방에 나와섰다. 《에그, 다 큰게 철없이 늦어들어오다니, 그러다 승냥이라도 만나면 어쩔려구 그러니?》 《어머니! 저를 살려준 은인을 모셔왔소이다.》 처녀가 김의원의 팔을 부여잡고 안으로 이끄는데 은인이라는 말에 화답달 달려나온 처녀의 부모들이 김의원을 둘러쌌다. 처녀는 방금 겪은 사연을 자조지중 터놓았다. 처녀의 부모들은 김의원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느라 바빠 돌아가며 뜻내 기뻐하였다. 뜻밖의 일로 하여 처녀의 집에서 하루밤을 묵게 된 김의원은 이튿날 꼭두새벽에 깨어일었다.

한시바빠 곱잠을 한가지 생각뿐인 김의원은 실례되는 일이지만 주인들 모르게 처녀의 집을 나설 생각에서 이부자리를 깨어놓았다. 김의원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아래방과 잇닿은 미닫이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아래방에서 처녀와 그의 부모들이 자기를 바라보는것이였다.